

2월9일(월)

제목: 하나님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도신경/찬송:391장/요한복음14:18-24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찾으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21절)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계명을 준행치 않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내려오시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은 악한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을 이용은 하신다. 그러나 친교는 안하신다. 하나님의 계명은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과 친교 하신다.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시는 사람은 성결이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 탓이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의 도덕성을 점검해봐야 한다.(21절) 그동안 나에게 기적이 안 나타났다면 나에게 거룩이 없었던 것이다. 그분의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2월10일(화)

제목: 예수님의 전유물인 평안

사도신경/찬송:369장/요한복음14:25-31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26절)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다.(27절)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나의 것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이다. 평안은 본래 예수님의 전유물이었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계신 몸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을지 알고 계셨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차 있었다. 예수님은 곧 닥칠 여러 가지 사건과 의문들로 인해서 제자들이 동요할 것을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상시를 대비해서 자신의 전유물인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다. 이 평안은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다.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늘의 평안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유물인 그 평안을 오늘날 신실한 자신의 성도에게도 허락하신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그 평안이 있다. 성도들이 어떠한 환란이나 재난이 와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침착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평안이 그들 속에 있는 까닭이다.

2월11일(수)

제목: 우리의 몫을 당당히 요구합시다.

사도신경/찬송:114장/요한복음15:1-10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인간도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어야 한다.(4,5절)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7절) 하셨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은 “너희 몫을 구하라”는 뜻이다. 만약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몫을 요구할 수 있다. 몫은 당연히 취할 우리 것이다. “몫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에서 “이유리라”는 “존재케 되다”의 뜻이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존재케 해주셔야 할 의무가 있으시다. 놀라운 말씀이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반드시 받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말씀에 지배당해야 한다. 우리와 그분과의 이런 상관관계 없이 무조건 우리 몫만 요구하면 서로 서로 피곤만 할 뿐이다.

2월12일(목)

제목: 왕의 친구

사도신경/찬송:94장/요한복음15:11-17

예수님은 이제부터 제자들을 노예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겠다고 하셨다.(15절) 사람이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바울도 다 하나님의 노예(들로스)였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노예였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어도 그것은 감격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그의 친구가 되었다고 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멀리 떨어져서 동경하는 마음으로 임금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와 속삭이는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임금이 길을 통과하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군중 중 한명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의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매 주일 청중 속에서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의 친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친구삼은 것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16절)

2월13일(금)

**제목: 우리는 괴상한 존재입니까?**

사도신경/찬송:343장/요한복음15:18-21

제자들은 항상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른 세상(예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18,19절) 세상은 자기와 다른 색다른 사람을 수상히 여긴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물건인 우산을 영국에 소개하기 위해 누군가가 우산을 처음 쓰고 다녔을 때 사람들로 부터 돌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세상은 색다른 행동이나 사고를 하는 사람을 괴상한 사람 혹은 위험인물로 간주한다. 세상은 뭔가 특이한 사람에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도 그런 딱지가 붙어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과 전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성서는 항상 흑백논리를 주장한다. ‘이쪽 아니면 그쪽’ 성서의 사람은 항상 세상과 다른 방향에서 있어야 한다. 성도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대단히 용기있는 일이지만 위험부담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용기를 가지지 않고서는 성도가 될 수 없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 “너는 그쪽에 서라 나는 이쪽에 선다” 말하는 자이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괴상한 자’ . ‘위험한 자’ 라는 딱지가 붙는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